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② 만경대(萬景臺)



무학대사가 새 도읍의 미래 조망한 자리

해발 800m. 봉우리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만 가지 풍경으로 보이기에 만경대라 부르며, 국망봉이라 불리기도 한다. 만경은 불교에서 만상(萬象)을 비추는 해인(海印)의 의미로 쓰인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도읍지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성계의 부탁을 받은 무학대사는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막상 가서 지세와 산세를 살펴보니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무학대사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강유역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아침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니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과연 길지로구나. 여기서 왕조를 세우면 되겠구나. 무학대사는 만족한 얼굴로 주위 산세를 살펴며 중얼거렸다.

그 때 한 노인이 소를 몰고 가며 "이 늙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하면서 소 엉덩이를 희치리리 후려갈았다.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귀가 번쩍 띄어서 "노인 어른, 지금 소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며 쫓아가서 물었다.

'만경'은 만상을 비추는 '해인'의 뜻 거울이 되어 산 아래 세상 보여줘

"미련하기가 무학 같다 했소."

노인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며 대답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학대사가 노인 등 뒤에 대고 간곡히 물었다.

"무학이 요즘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영동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소."

노인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무학대사는 그 노인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고 쫓아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바로 그 미련한 무학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서 천년대계를 세울 도읍지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책쪽으로 서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십리쯤 더 들어가서 지형을 살펴봐도록 하시오. 그러면 도읍지가 보일 것이오."

노인은 이렇게 말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무학대사는 노인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공손히 합장 한 후 서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십리쯤 걸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길지 중의 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명당이로구나!"

무학대사는 지금의 경복궁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한참동안 무아경에 잠겨있던 무학대사는 널따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

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선정에 들었다. 한양을 에워싼 주변 지형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풍부한 수량을 지닌 큰 강이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넓은 옥토가 끝없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리고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우뚝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봉우리를 보는 순간 이성계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감탄했다. 그 봉우리들은 석왕사에 있을 때 삼매 속에서 본 바로 그 봉우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장군한테 일러줬던 그 봉우리들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무학대사는 자신이 그 봉우리를 올라 가 봐야 한다는 자기 암시 같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이튿날 일찍 북쪽에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은 온갖 잡목과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무학대사는 들고 있던 주장자로 잡목과 수풀을 헤쳐 길을 만들며 산길을 올랐다. 얼마간 그렇게 산길을 오르자 뿔처럼 우뚝하게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여기로구나!"

무학대사는 삼매에서 본 봉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봉우리임을 알고 걸음을 멈춰 섰다. 그러면서 고개를 찿히고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가슴은 감개무량했다.

"백운(白雲), 저 봉우리가 바로 백운이군."

무학대사는 흰 구름에 쌓여 있는 봉우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 이성계에게 찾아가서 하늘의 뜻을 확인하도록 권했던 봉우리, 백운!

무학대사는 백운대 옆에 있는 봉우리 위로 올라갔다.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굽어보니 바위 능선과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우에 좋은 형제들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 강과 들만이 풍요로운 공간처럼 한양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만하면 도읍을 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무학대사는 도읍을 정함에 손색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용히 선정에 들었다. 왕위를 놓고 형제들 간에 각축이 벌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파당을 만들어 싸움질을 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이 고달프게 사는 모습도 보이고, 가뭄과 흉수로 나라 안이 황폐해 지는 것도 보였다.

"사람도 아이에서 어른이 되려면 각종 시련을 겪어야 하듯, 땅 역시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할을 어찌라! 그러나 육백여 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은 번영의 시기가 도래 해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계의 중심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무학대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선정에서 깨어났다.

선정 속에서 미래에 펼쳐질 만상의 모습을 본 무학대사는 해인海印의 의미를 담아 그 봉우리를 만경대(萬景臺)라 명명 했다.

〈여기꾼〉 소설가 이종숙

삼보 상징하는 清水, 세간의 염원도 담네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② 교토 청수사



일본 법상종의 총본사인 청수사의 전경(사진 왼쪽)과 본당의 주불이자 일본의 국보인 십일면관세음보살상(사진 오른쪽). 일본의 국보인 청수사 본당은 139개의 나무기둥이 뒀 하나 없이 세워져 장엄미를 더한다. 청수사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일본의 교토는 794년 간무천왕이 수도로 정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도쿄로 수도를 옮기기까지 약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지역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보다 자부심과 긍지가 엄청나다. 실제 교토 토박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삼대(三代)가 교토에서 거주해야 할 정도다.

그만큼 교토에는 고찰이 많고, 그 중에는 미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 교토의 청수사(清水寺)가 바로 그런 곳이다.

청수사는 서기 780년경 엔친대사(延津上人)가 꿈속에서 맑은 물을 찾아가라는 현몽을 꾸고 이를 찾아 해마다 소나무와 흰 구름을 두루고 있는 음우산(音羽山) 중턱 오토와와 폭포 근처에서 수행 중이던 한 선인을 만나게 된다. 그 선인으로부터 나무 조각을 건네받은 엔친대사는 '십일면관음'을 조각해 선인의 암자에 봉헌한 것으로부터 청수사의 역사는 시작된다. 천년을 이어 온 고찰 청수사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청수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성스러운 물인 '청수(清水)'다.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 물을 먹기 위해 지금도 많은 순례객과 관광객이 청수사를 찾는다.

청수사의 '청수'는 본당 무대 아래에 있다. 오토와 폭포에서 나오는 물이 석재로 만들어진 수구(水口)를 따라 세 줄기로 흐르고 있다. 본래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장수(건강), 결혼(사랑), 학문(학업)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변화했다.

오토와 폭포 앞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육군이 청정해지고 소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다. 삼보에 귀의하는 예경심을 상징하는 폭포는 이제 세간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다.



청수사의 명물 '오토와 폭포'. 세 줄기의 물은 장수, 결혼, 학업을 상징한다.

장수 등 기원하는 세 물줄기 이 물을 마시러 참배객 몰려 본당 등 전각, 빼어난 건축미

청수사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본당이다. 절벽위의 10m의 절벽에 세워져 그 아찔함이 자랑인 본당 마루는 139개의 나무 기둥에 못 하나 없이 세워졌으며, 이 같은 조형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국보로 등록돼 있다. 실제 가파른 경사지에 목재 기둥과 보를 엮어 올려 본당을 이룬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안타까운 것은 원래 건물은 화재로 전소됐다는 점이다. 현재 본당은 1633년에 그대로 복원한 것이지만 1200여년 전에 이런 거대한 건물을 경사지에 세웠다는 점은 당시의 일본인들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당의 주불은 창건주인 엔친 대사가 선인에게 건네받아서 조성했다고 하는 십일면관음보살이다. 일본의 국보인 '십일면관음보살상'은 비불(秘佛)로서 일반에는 어지간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본당의 현판도 눈길을 끈다. 청수사 본당의 현판에는 '자안시중생 복취해무량(慈眼視衆生 福聚海無量,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굽어 살펴 고 복은 바다와 같이 한량이 없다)'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경구로 관세음보살의 자재함과 공덕을 함께 칭송하는 장면이다.

관세음보살을 의심하지 말고 애경하고 의지하며, 일심으로 예배를 올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당과 주불, 오토와 폭포까지 청수사는 인간사의 염원과 소망을 기원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다. 이 같은 신앙을 '타력'이나 '기복'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한국불교 정서 안에는 적지 않으나 일본불교는 이를 진숙하게 생활 안으로 녹여내고 있다. 옛 문화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일본의 젊은 연인들과 여고생들이 사찰 경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목도할 수 있는 점도 일본불교의 강점이다.

본당을 나오면 음우산 정상 중턱을 따라 긴 산책 길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교토의 전경은 청수사의 또 다른 볼거리다. 또한 청수사의 다른 전경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사찰 순례의 즐거움이다.

조금 더 침언하면 청수사를 오르는 비탈길에는 좌우로 상가가 뻗어 들어 있다. 한국 사하촌 상가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잡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다. 마지막 상가부터 인왕문 앞 고개를 '3년 고개'라고 한다. 이유는 여기서 넘어 가면 3년 동안 재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치가 좋은 만큼 '조고각하'하며 올라오라는 일본인의 해학이 담겨 있는 대목이겠지만, 혹시 모르니 찾는 이들은 조심하시길.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한불상! 02)2004-8216

동형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8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뒀면) 8cm]

